

GRI
Makes a Better Future for Korea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 작성 최준규 / 정책분석부 연구위원
(quinsy8@gri.re.kr, 031-250-3510)
윤소은 / 정책분석부 연구원

목 차

쟁점과 대안

- I. 지역화폐의 다양성
- II. 지역화폐의 운영구조 및 기대효과
- III. 지역화폐 관련 도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
- IV.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유통 중이던 화폐가 유통되지 않을 때, 이것을
몰아내고 진짜 유통되는 화폐라면 어떤 것이든
악화가 아니라 양화라고 생각한다.”

- 어빙 피셔 -

(Irving Fisher, 1867~1947)

쟁점과 대안

국내에서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 실험은 공동체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화폐의 또 다른 흐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득의 지역 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화폐는 다양한 개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장 대표적 형태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인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는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폐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하지만 신뢰 형성을 전제로 하기에 화폐운영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속가능성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화폐는 보다 광범위한 유통범위의 설정 등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다. 중소도시 규모에서의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영국 브리스톨 시의 지역화폐 실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화폐 운영모델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화폐의 한 유형으로 지역상품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의 비용 문제 등 극복해야 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화폐 유형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특히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범용 화폐 모형’의 경우 통일된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군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 지원 모형’의 경우 지역화폐의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시군협력 과정이나 시군의 운영능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요소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방안 설계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모형의 도입논의와 함께, 지금까지 꾸준히 실험되어 온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활성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 지역화폐의 다양성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공동체 기반의 대안운동 형태로 출발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구제 등의 목적으로 도입

○ 일반적으로 지역화폐의 시작은 1832년 영국에서 도입된 ‘노동증서’에서 출발

- ‘노동증서’는 영국의 사상가 Robert Owen이 만든 화폐로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가치를 평균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그만큼의 노동증서를 받고, 다른 참가자가 제공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게 만든 대안적 화폐구조’로 설계

○ 국내 지역화폐에 있어서도 최초 지역화폐의 형태는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동체 화폐제도의 형태로 도입

-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래화폐’를 사용하는 공동체 화폐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지역화폐인 대전 ‘한밭레츠’는 1999년 회원모집을 시작으로 2000년에 출범

- 이후에도 ‘과천 품앗이’, ‘광명 그루’, ‘송파 품앗이’ 등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지역 차원에서 발생 및 소멸을 거듭하며 실험을 지속

□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 운동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운영상의 한계를 경험

○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관계망의 개선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한계 존재

- 공동체 화폐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 간의 신뢰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제한된 규모의 공동체 단위에서 실험

- 제한된 규모의 공동체는 신뢰 형성을 도와주지만,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
- 그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의 관리, 운영, 갱신 등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 업무량 발생
- 2000년대 후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부각되면서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의 역할 재조명
-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희망마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공동체회사,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공동체 사업 추진
- 경기도 역시 민선6기 파북공동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
- 정책영역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주요 목표로 부상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써, 지역화폐의 가능성에 다시 주목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역할 강조

- 최근 소규모 지역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도구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
- 세계적으로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재정위기, 재정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ERDP)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출연기금 400만 유로를 준비
- 프랑스의 소낭트(SoNantes),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 등의 지역화폐 실험 주목

○ 국내에는 공동체 화폐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지역화폐 사례들도 오래전부터 존재

- 오스트리아 베르글의 노동증서는 실비오 게젤(Silvio Gegell)의 감가화폐 이론을 바탕으로 스탬프 화폐를 도입하여 활성화했던 사례(1933년 중앙은행에 의해 폐지)
- 미국에서도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이론을 바탕으로 300개 이상의 마을에서 스탬프 통화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경험
- 스위스의 비아(WIR)은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20%가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자본의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 독자적인 지역통화시스템으로 정착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증가

○ 전통적인 지역화폐의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상품권 흐름 역시 지역화폐 활동이 가지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

-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활동의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음(문진수, 2014)

○ 2016년 말 기준으로 56개의 지역상품권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운영할 예정(행정안전부, 2017)

- 행정안전부가 도입하여 운영하는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
- 2006년 20억 원 규모로 시작된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7년 260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역시 7,769개소로 크게 증가(경기일보, 2018.03.21.)

- 광역차원에서 강원도에서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금의 원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상품권 정책을 2017년부터 추진

지역화폐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영

□ 지역화폐의 개념은 그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

- 일반적으로 지역화폐(local currency)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의
- 지역화폐 개념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가능

<지역화폐의 다양한 표현과 의미>

용어	의미
지역화폐 (local currency)	지역에 기반하여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공동체화폐 (community currency)	물리적 지역뿐 아니라 특정 공동요소를 갖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보안화폐 (complimentary currency)	자원순환 활성화 등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전환/이행화폐 (transition currency)	기존의 에너지 의존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사회에서 더 생태적인 사회로의 전환/이행을 추구하며,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가치절감화폐 (depreciative currency)	이자를 붙이지 않고, 스탬프나 인지 등의 방식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통해 감가상각 되는(노화되는) 화폐로서의 의미 강조, 계절의 자유화폐이론에 기반한 노화하는 돈(Aging money)과 같은 개념

자료: 이수연(2014).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지역화폐의 유형은 크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에 따라 구분 가능

- 공동체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법정화폐와의 태환가능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구성원 간의 관계형성에 보다 초점

- 대표적으로 레츠(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LETS) 방식의 지역화폐는 회원들 사이에 서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품앗이 방식을 기본으로 운영
 -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범위가 좁은 형태로 구현
- 반면,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공동체 차원의 신뢰 형성보다는 지역 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계
-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화폐로의 환전 가능성도 열어두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많이 논의되는 지역상품권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장 강하게 포함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판단 가능
-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의 일반적 형태 및 각 요소의 기대효과에 차이가 발생
- 예를 들어, 통화 공간을 넓히게 되면, 구성원 간 신뢰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화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경향을 보일 수 있음
 - 목적 및 지향점 차원에서 유형을 구분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지역화폐는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지향

<지역화폐 목적에 따른 운영형태>

	공동체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구축
매개물(담보)	없음(신뢰기반)	있음(물적자산)
화폐 안정성	낮음	높음
구성원 간 신뢰	높음	낮음
환전 가능성	상호신용통화	불태환통화, 태환통화
통화 공간	좁음	넓음
주요사례	레츠	킴가우어, 브리스톨파운드, 지역상품권

Ⅱ. 지역화폐의 운영구조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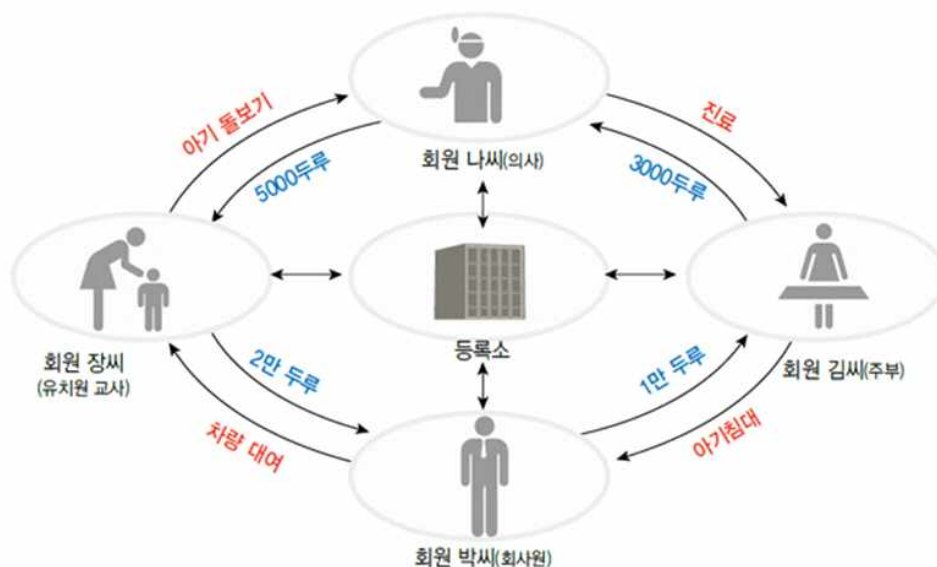
풀뿌리 공동체 기반 지역화폐 운영구조 및 기대효과

□ 가장 대표적인 풀뿌리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로 레츠(LETS)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음

○ 레츠와 같은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는 사용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화폐가치를 창출

- 레츠의 경우, 사용자들이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가격과 함께 지역화폐의 형태로 표시하여 공유하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적 교환을 진행
- 가격을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화폐가치의 측정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

<한발레츠 ‘두루’ 거래모형>



자료: 인간의 얼굴 '지역화폐'...지역경제·공동체 부활 '일석이조', 한겨레(2014.7.20).

□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및 신뢰·규범의 형성에 있음

○ 거래를 위한 구성원 상호간의 대면접촉인 증대함에 따라,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

- 구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의 경험은 주민간의 공통가치, 공통의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그 안에 내재된 사회문제(소외계층, 지역문제 등)와 대면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

○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 역시 부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구경제 개선의 효과도 발생

- 과천품앗이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 제시(최준규 외, 2016)¹⁾

- 해당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과천품앗이 지역화폐 운영사례에서 참여 가구의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는 월 2.68만 원, 연간 32.20만 원으로 추정

<지역화폐의 거래량 및 거래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단위: 만원)

구분		참여 가구당	설문응답 (N=44)	공동체전체 (N=150)
지역화폐 거래량 시뮬레이션 결과값	월간	10.60	466.31	1,589.69
	연간	127.18	5,595.72	19,076.32
지역화폐 거래의 부가가치 시뮬레이션값	월간	2.68	118.07	402.51
	연간	32.20	1,416.84	4,830.14

자료: 최준규 외(2016).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연구'에서 재구성.

1) 과천품앗이의 전체 회원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10여명으로 파악되며, 적극적 회원은 약 50명 내외로 파악.

지역순환경제 차원의 지역화폐 운영구조 및 경제효과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 £ B)는 지역순환경제 구축 차원의 지역화폐 형태로 분류 가능

○ 브리스톨파운드는 기존의 지역화폐 운동이 가지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 차원의 지역화폐시스템 구축 추진

- 브리스톨시는 도심인구 43만 명, 외곽지역을 포함할 경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소규모 도시로 전통적 지역화폐 흐름 가운데 가장 큰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

- 브리스톨파운드는 발행액만큼의 실물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본위제 방식의 화폐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물통화와 온라인/모바일(SMS 활용) 결제 방식을 병행

- 브리스톨파운드는 개별 소비자는 환전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 차원에서는 환전이 가능한 중간형태의 사업모형 제시

○ 브리스톨파운드의 운영을 위하여 시 정부, 지역 금융기관, 지역 사회혁신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모형을 구축

- 초기 화폐설계 단계에서는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의 자문을 통해 화폐 도입 방안 마련

- 지역 금융기관(Bristol Credit-Union: 지역신협)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 브리스톨파운드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이 담당하여 운영

- 브리스톨 시 정부는 사무공간과 초기(3년)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세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시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민간의 다양한 자원이 결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시 정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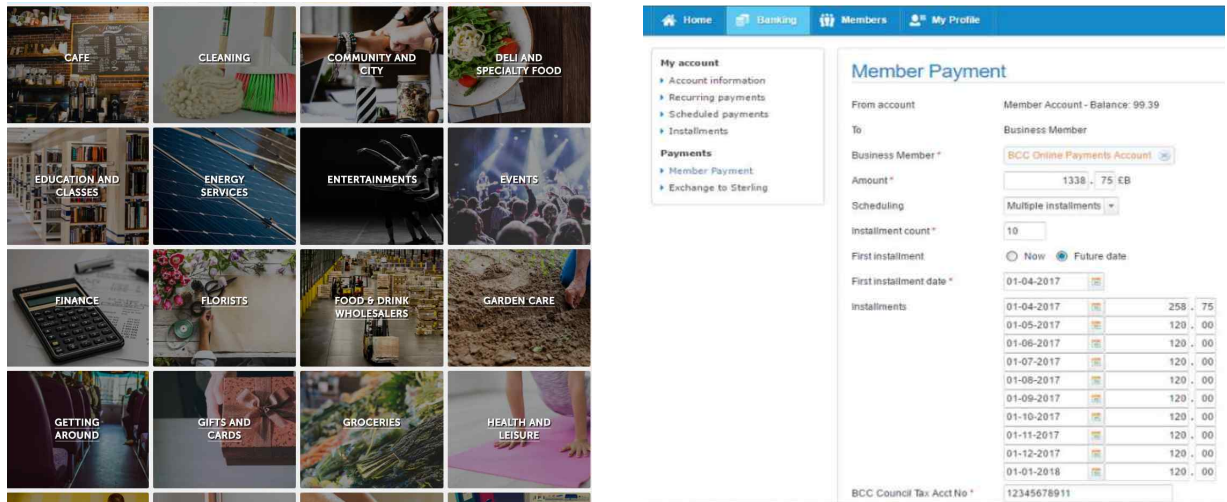
자료: 문진수(2015). '지역화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강의자료.

□ 브리스톨 시 정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납부수단 확대 추진²⁾

- 브리스톨 시는 직원 급여의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하며, 시장의 경우 급여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
- 시 정부는 지방세와 에너지 요금의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지방세 납부의 경우, 온라인으로 본인 계좌에 접속하여 지불금액과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며, 매달 자동납부도 가능
 - 브리스톨 지역기업인 Bristol Energy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Good Energy, 2개 에너지 기업의 이용요금을 납부 가능하도록 추진

2) 행정자치부(2016.12.10.)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처 및 지방세 납부 화면>



자료: 브리스톨파운드 홈페이지(<https://bristolpound.org/>)

□ 브리스톨파운드의 경제적 규모 및 시사점

- 2014년까지 발행된 지폐 총량은 11만 5천 파운드(약 2억 원)로 소규모이며, 전용계좌 개설 수는 1,500계좌, 가맹점 수는 370여 개로 파악
 - 브리스톨파운드의 주 수입원은 화폐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므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거래가 필수
 -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화폐교환 시 10%의 인센티브를 현금포인트(cash points) 방식으로 부여
- 브리스톨파운드는 기존의 지역화폐와는 차별적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
 - 기존 지역화폐 실험보다 넓은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여 화폐로써의 기능 강화
 - 지역신협이 지역화폐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모바일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편의성 제고
 -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운영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화폐의 공익적 목적 실현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운영구조 및 경제효과

□ 국내에서는 지역화폐의 또 다른 형태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이 확산

○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 같이 지역순환경제 구축의 목적을 강하게 띄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설계

- 지역화폐 관련 정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유통과정에서는 화폐의 1차이용 이후 유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 개념의 화폐와는 차이가 존재

<고향사랑 상품권 개요>

(개념)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효과)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현황)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7년 6월 기준 56개의 지자체에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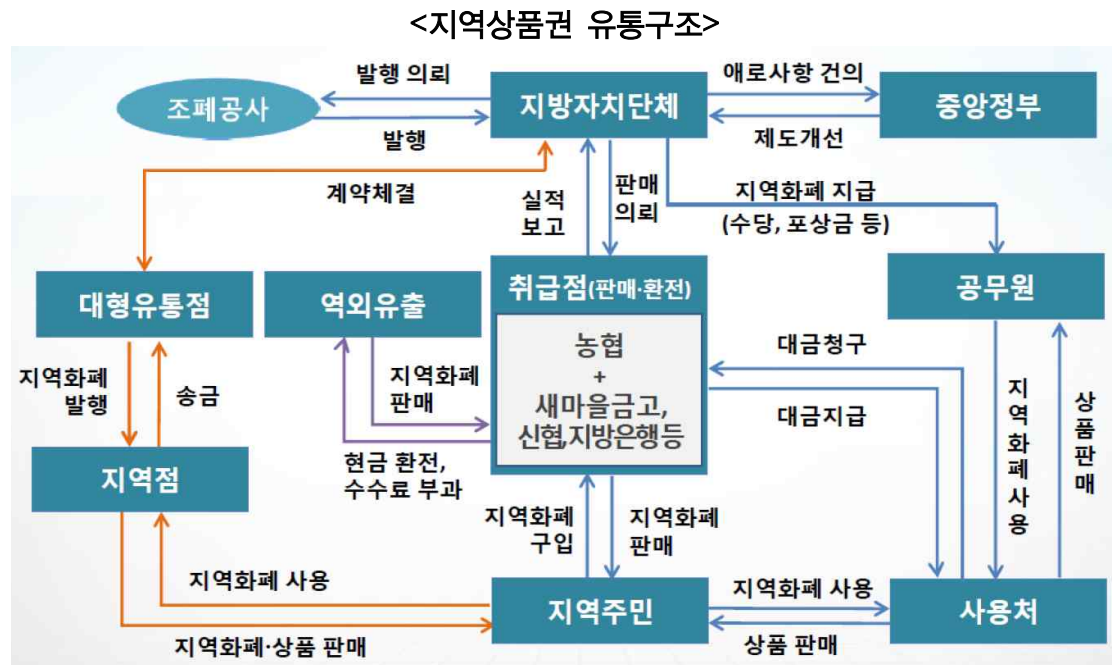
(근거) 지자체별 고향사랑 상품권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2017).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안내서'.

○ 지자체별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도모

- 성남시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년수당을 성남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 할인판매, 혹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지자체의 복지비와 포상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수단을 도입



자료: 행정안전부 컨설팅 자료(2017.1); 전대욱(2018). “고향(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사례와 경제효과 추정”, 경기도 발표자료에서 재인용.

☐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감소효과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2차 소비 증대 등으로 발생

- 지자체의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지역화폐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차이 발생³⁾
 - 지역상품권의 활용 유형은 지역화폐형(내부형), 관광형(외부형), 통합형(지역화폐형+관광형)으로 구분
 - 내부형은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상품권을 유통하며, 외부형은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판매, 통합형은 주민·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유통
- 경제적 효과는 지역주민(역내이용자)의 경우 타 지역 구매에 대한 대체효과 발생하며, 일회성 관광객(역외이용자)의 경우 지역 내 구매 및 추가 현금지출 효과가 발생

3) 전대옥(2018). “고향(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사례와 경제효과 추정”, 경기도 발표자료.
전대옥(2018).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참조.

- 관광객에게 주로 판매하는 춘천과 화천의 경우 외지 방문객의 추가지출 부가가치가 높고, 주민들이 전적으로 활용하는 양구는 지역 내 거래순환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남

<고향사랑상품권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분석>

구분	양구군	화천군	춘천시
유형	지역화폐형 (관내주민, 군부대 등)	관광형+지역화폐형 (관광객+지역주민)	관광형 (소양강 Skywalk 입장객)
도입년도	2007	1996	2017
연간 판매액	77.41억 원	17.38억 원	6.09억 원 (2017.1~2017.8)
주 사용처	가맹점 지역주민이 현금처럼 활용	지역축제(42%), 군청(37%), 기타 기관·단체(16%) 등	음식(65%), 전통시장(13%), 소형마트(11%)
부가가치 총합	12.81억 원	6.98억 원	5.97억 원
(현금환전)	9.58억 원	3.31억 원	1.28억 원
(거래순환)	2.25억 원	0.37억 원	0.36억 원
(외지인 추가지출)	0.00억 원	3.08억 원	4.31억 원
(낙전수입)	0.98억 원	0.22억 원	0.03억 원

자료: 전대욱(2018). “고향(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사례와 경제효과 추정”, 경기도 발표자료.

전대욱(2018).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내용을 재구성.

□ 지역상품권의 유통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운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장애요소의 극복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지역상품권의 유통을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소요

- 행정안전부(2017)는 25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유통(2종 지류 상품권 30만장)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로 연간 약 2억 2천만 원 규모를 제시

<지역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요예산 예시>

예산항목	산출근거	예산액
상품권 제작비	30만장(5천원권 10만장, 1만원권 20만장) × 95원	28,500천원
상품권 봉투제작	3만장 × 95원	2,850천원
판매수수료(판매대행점)	25억원 × 0.5%	12,500천원
환전수수료(판매대행점)	25억원 × 0.5%	12,500천원
환전대행 수수료(환전대행가맹점)	25억원 × 0.5%	12,500천원
할인 또는 포인트(마일리지) 제도 운영비	25억원 × 2.0%	50,000천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서버, 판매프로그램, 스캐너 등	100,000천원
홍보비 등 기타 비용	포스터, 현수막, 가맹점 지정서 등	1,150천원
합계		220,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2017).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안내서”에서 재정리.

주: 각종 수수료, 포인트 보조금 비율 등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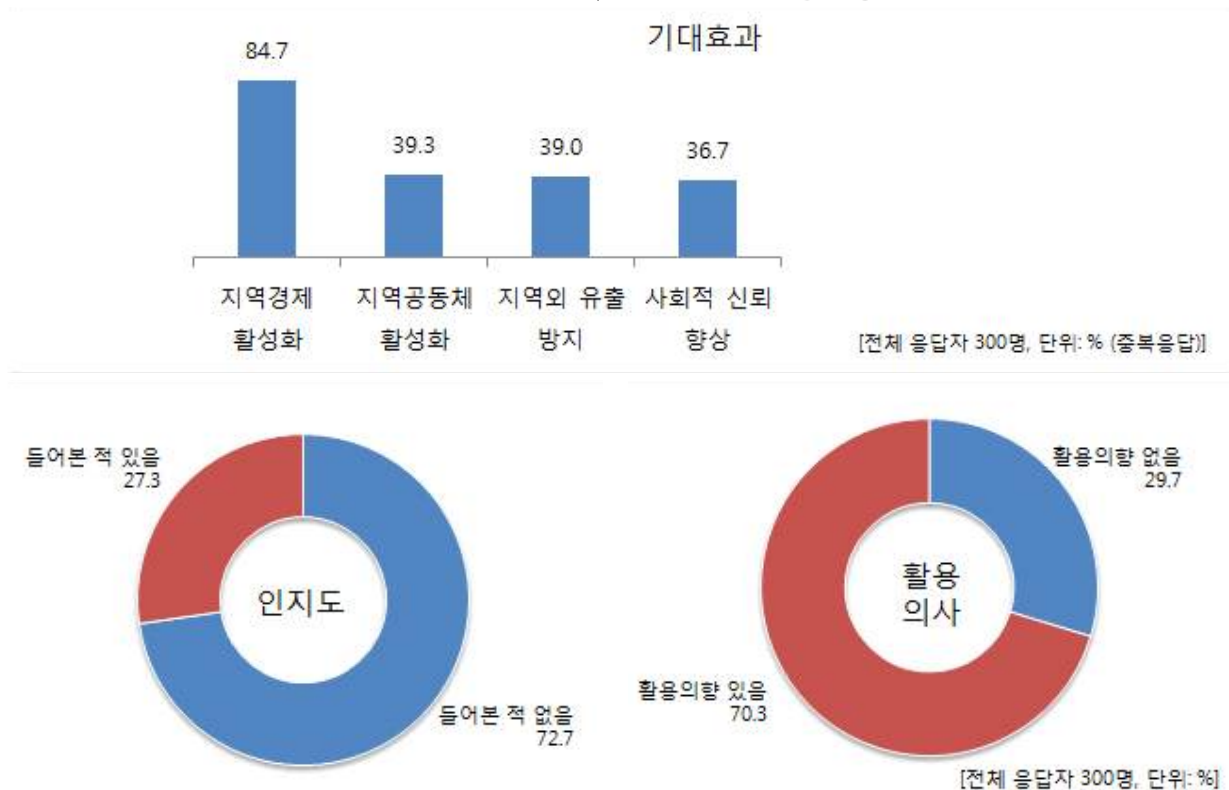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역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검토 필요
 -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일체감·공동체성 미흡으로 인한 '불법환전'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증대
 -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점상권으로 자금의 '쏟림현상'이 발생할 우려 존재
 - 관내 지자체 상품권과 사용처, 운영기관 등이 중복되어 경제적 효과성이 저해되고, 운영상의 비효율 발생 가능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도입할 때는 획일적으로 상품권을 도입하기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Ⅲ. 지역화폐 관련 도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

지역화폐에 대한 경기도 도민인식은 경제활동의 개선에 집중

- 일반적인 경기도민의 경우, 지역화폐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경제적 측면으로 인식
 -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및 활용의향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높은 활용의향을 보이고 있음

<지역화폐 기대효과, 인지도 및 활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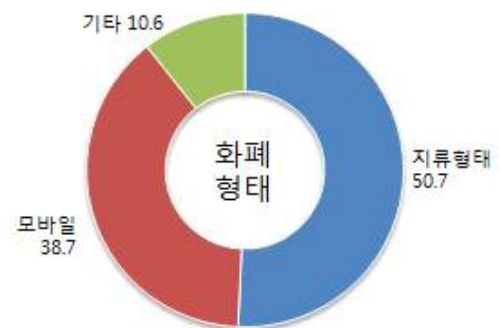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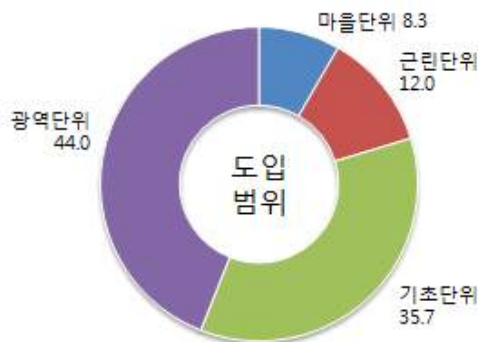


자료: 경기연구원(2016) 조사자료

□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도민의 인식은 지역화폐의 일반적 논의와 다르게 '경제적 목적에 따른 광역차원의 일반화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

- 지역화폐의 도입범위에 있어서 경기도민들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형성
 - 이러한 인식은 대다수의 도민이 지역화폐를 공동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
- 지역화폐가 도입될 경우 선호하는 지역화폐의 형태에 있어서는 지류 상품권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모바일에 대한 선호도 높게 형성

<지역화폐 도입의 적정 범위 및 형태 대한 도민인식>



[전체 응답자 300명, 단위: %]

자료: 경기연구원(2016) 조사자료.

기술혁신에 통한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모바일 환경,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 도입을 통하여 지역화폐의 거래비용 절감 추구
- 지역화폐 실험이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정착에서 미흡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래비용의 문제를 지적(황영순 · 오동하, 2018)

- 지류화폐를 활용하는 경우에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법정화폐에 비해 불리하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저비용 정보처리기술이 뒷받침되기 어려움
- 서울 노원구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노원(NOWON)을 개발하여 2018년 2월 상용화 추진
 - 자원봉사 시간을 지역화폐로 제공하여, 발생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
 - 지역화폐 노원은 자원봉사 1시간을 700노원으로 설정하여, 물품의 기부와 판매 시 10%가 지역화폐로 적립되는 운영구조로 설계되어 화폐발행을 위한 별도의 재정투입은 없으며,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는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지향
 -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체계의 상당 부분은 중앙집중식 DB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완전한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보기에는 미흡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OWON)의 운영구조>



자료: 황영순 · 오동하(2018).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 『BDI정책포커스』, 부산발전연구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 실험을 위한 다양한 제언 등장

○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2019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

- 향후 전국 공통의 상품권 플랫폼 인프라 조성 및 지역상품권의 한시적·일회적 사용을 넘어, '역내 결제화폐'로서의 역할 강화 추진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 플랫폼 운영체계(안)>



자료: 최준규(2017).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서울페이, 경기도 G코인, 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지역화폐 관련 정책제안 제시

- 수수료 절감을 위한 페이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대안결제시스템', 그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을 강조하는 코인 체계, 역외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전통적인 지역화폐로써 '공동체 화폐' 등 다양한 스펙트럼 존재

- 다양한 정책이 '지역화폐'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세부적 내용은 조금씩 다른 정책지향을 내포

IV.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위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검토

-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활성화는 크게 기초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 지원 모형'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범용 화폐 모형'을 제시 가능
- (광역 지원 모형) 지역화폐 활성화에 있어서 광역의 역할은 31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고, 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
 - 기초자치단체별로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함에 따라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가능
 - 재정사업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할 경우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과 협약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수행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등에서 문제 발생 가능
- (범용 화폐 모형) 도 차원의 지역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공동체 조직과의 연계 등 운영방식과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가능한 범용 지역화폐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안
 - 범용 화폐 방식의 경우 경기도 차원의 상품권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부담과 광역차원 운용의 부작용 발생 가능
 - 광역 차원에서 범용 상품권을 활용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육성 등 보다 세분화된 정책목표와 융합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경기도 지역상품권 도입 모형(안) 비교>

구분	광역 지원 모형	범용 화폐 모형
광역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화폐 발행 플랫폼 구축 기초단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정사업 집행수단으로 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역화폐 가맹점 지정 및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정사업 집행수단으로 활용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단위 지역화폐 활성화 기초단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 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차원의 정책도구로 통일된 활용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목표 희석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간 운용능력의 격차 발생 31개 시군의 협력에 대한 전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에서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 (가맹점 관리 등) 지역 쏠림현상 발생
극복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의 운영플랫폼을 통한 기초단위 운영의 비효율성 제거 광역-기초 간 상시적 정책협력기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등 정책목표의 세분화 블록체인 등 전자화폐 도입을 통한 운용 비용 절감

□ 사회혁신의 도구로서 지역화폐의 활용 가능성 모색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광역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문제·지역의제와 결합된 사회혁신 도구로 활용

- 자원봉사, 문화관광, CSR,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지역의제와 결합하여 보다 근본적인 사회혁신의 도구로 지역화폐 설계 가능

- 예를 들어, 자원봉사 포인트를 활용한 복지화폐 운영, 테마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 등 광역 의제 중심의 지역화폐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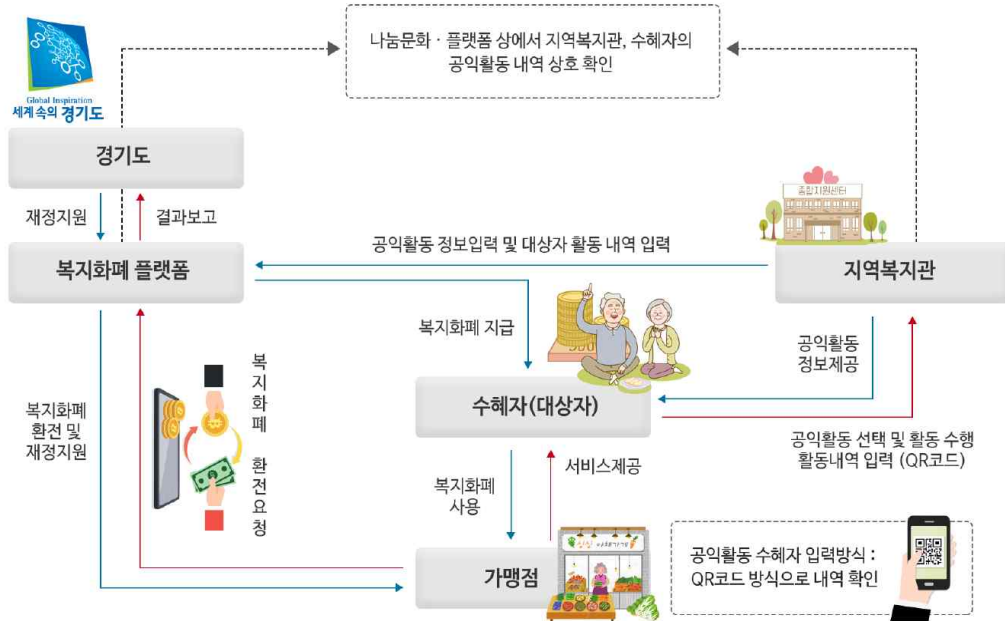
○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발전을 활용한 지역화폐 발전방안 모색

-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DB 운영보다 정보의 완결성, 투명성, 최종성 등을 보완하여 화폐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

- 블록체인 기술이 내포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의 기술적 진보는 단일 플랫폼 아래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지역화폐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줌

- 또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화폐의 도입은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행·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 제공

<지역의제 기반의 지역화폐 운영모델 예시>



자료: 최준규(2017).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이외에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생태계 조성 지원 병행

-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더라도, 풀뿌리 주민 조직 차원에서 실험되어온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에 대한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 필요
- 공동체 단위의 지역화폐들이 풀뿌리 단계에서 다양하게 실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 인프라 제공
 - 지역화폐 인식 확산을 위한 학습기제 마련,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 모델 발굴, 경기도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의 발굴 및 지원, 공공부문의 유헄 공간 활용, 공동 가맹점의 확보 등

[국내 공동체 기반 지역화폐 주요 사례]

공동체 이름	출범	비고
서울 송파품앗이	1999년	현금과 동일 가치
대전 한밭레츠	2000년	현금과 동일 가치, 연 2만원 회비
경기 과천품앗이	2000년	1시간=1만 아리
경북 구미 사랑고리은행	2002년	1시간=1고리=약 5천원
광명지역품앗이 광명그루	2004년	100원=100그루
부산 사하품앗이	2007년	1000송아=1000원
경기 의정부레츠	2008년	1시간=1만 누리
서울 서초품앗이	2009년	1시간=1품
서울 은평구	2011년	현금과 동일 가치
수원 구름 위의 도서관	2014년	별을 통해 책 대여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2015년	현금 환전 가능
서울 노원구	2018년	1시간=700노원, 기부액 10%

자료: 황영순·오동해(2018),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에서 재정리.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지자체 현황]

(2017.6.21. 기준)

구분	계	광역시	기초	세부내역
총계	56	1	55	
서울	-	-	-	
부산	-	-	-	
대구	-	-	-	
인천	1	-	1	강화군
광주	1	-	1	남구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2	-	2	성남시, 가평군
	(7)	-	(7)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평택시, 양주시, 안양시
강원	10	1	9	강원도, 춘천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9	-	9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8	-	8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4	-	4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	8	-	8	여주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7	-	7	포항시, 군위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남	6	-	6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제주	-	-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행정안전부(2017.9),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안내서” 내용을 수정·보완.

주: ()의 수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도입예정 혹은 도입검토 중인 기초자치단체 현황.